

정의

노 윤 래 | 전 한전원자력연료(주) 사장



고대 로마제국 ‘정의의 여신’인 유스티시아 조각상은 눈을 가리고 왼손에는 저울, 바른손에는 칼을 잡고 있다. 이 여신상의 눈이 가려진 것은 신분의 빈부귀천에 관계없이 어느 쪽에도 불편부당한 태도를 취하며, 저울은 각자의 몫을 정확하게 분배한다는 의미를, 칼은 정의롭지 못한 악에 대해서는 동일한 규칙에 따라 엄중한 처벌로 응징함을 상징한다.

철학과 정의

헤겔은 1820년 그의 『법철학』서문에서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녘에야 날아오른다는 명언을 남겼는데 ‘지혜의 여신’인 미네르바의 어깨에 앉아있는 부엉이는 철학을 상징한다. 주맹증(晝盲症)에 걸린 부엉이는 황혼녘이 되면, 즉 세상의 복잡한 변동이 가라앉은 시점에서 세계를 냉정히 바라볼 수 있어 활동하기 시작한다. 이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정의감이란 냉철한 이성(철학)을 바탕으로 실현될 수 있음을 뜻한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 플라톤이 “정의란 무엇이며 정치 공동체에서 정의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다양한 아이디어가 창출되었고 철학적 사변의 새로운 노선이 제시되었는데 이는 오늘날에도 계속되는 담론이다. 『사회계약론』의 첫 문장이나 『공산당선언』의 마지막 문장에 대해서도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플라톤은 제자들과의 토론에서 최상의 권력이 가장 위대한 지혜와 일치할 때에만 최선의 법률과 체제(Constitution)가 존재하게 된다면 그 이외는 다른 어떤 방식으로든 불가능하다고 설파했다. 플라톤에 의하면 적절한 정치논

서울대 공대 전기공학과 졸업

한국원자력연구소 연구관

한국전력공사 근무(1966~1994, 최종

직위: 영광원자력본부장)

한전원자력연료(주) 근무

(1994~2000, 최종 직위: 사장)

서울대, 한양대 강사 역임

리는 유동적이고 갈등에 차 있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대립과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 골격이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일정한 규격에 모든 것을 짜맞추고자하는 프로크루스테스(Procrustes)가 아니라 갖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변화무쌍한 바다의 신인 프로테우스(Proteus)라는 것이다. 플라톤에게 정의는 올바른 정치 논리의 확립이었던 것이다.

플라톤은 철학만이 사회에 행복을 가져다줄 수 있는 구원의 지식을 담고 있다고 확신했으나 동시에 그 지식은 그가 가장 혐오한 방법인 권력에 의해서만 실천에 옮겨질 수 있음을 고통스럽지만 인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그는 『법률(Laws)』에서 슬회하고 있다. 때문에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고전적 정치 저술가들은 절대적인 정의의 존재를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정치적인 것’과 ‘정의로운 것’ 사이의 관계에 대한 탐구는 정치 공동체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종교와 정의

종교계는 정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초기 기독교는 ‘진정한 정의란 통치자가 그리스도인 그런 공동체에만 존재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권력과 소유욕으로 부패된 종교는 개혁 운동을 통해 정치사회로부터 초연한 영적(靈的) 왕국의 교리를 설파했으나 크게 성공하지는 못했다.

루터의 만인사제설(萬人司祭說)에 담긴 급진적 평등주의는 신자들 사이에 형성된 필연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된 것이 아니라 루터의 확신, 즉 신앙은 오직 개인에 의해서만 획득될 수 있고 신자는 어떤 외적인 것에 의해 구속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사상에서 생겨난 것이다. 루터의 공격 대상은 주로 교회 중심주의(Ecclesiasticism)와 스콜라철학(Scholasticism)으로, 이는 종교적 삶에 강한 정치적 흔적을 남긴 교회 구조의 위계적 원칙과 세속적인 관여에 반대한 것으로 해석된다. 루터가 1인 지배와 위계 제도를 거부한 것은 명백하기 때문이다. 또한 루터는 사랑, 친절, 자비라는 기독교의 가치가 사회와 정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확신했다. 그러나 기독교 윤리가 개인들 사이에서는 잘 적용되었으나 복잡한 정치 질서에는 부적절할 수도 있음을 시인했다.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고전적 정치 저술가들은 절대적인 정의의 존재를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정치적인 것’과 ‘정의로운 것’ 사이의 관계에 대한 탐구는 정치 공동체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에너지 개발에 원자력의 이용이 크게 기대되고 있다. 화석 연료의 가격 급등과 지구 온난화로 향후 원자력의 비중은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Atom for Peace)’은 정의로운 인류 문명의 선도자이다.

유교의 정치사상과 정의

동양에서 정의란 유교의 정치사상에 기초를 두고 있다. “신은 저승에 가서 용봉(龍逢)과 비간(比干)을 만나 그들과 사귄 수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할 것입니다.” 이는 BC 12년 한(漢)나라의 황제인 성종에게 섬서성 흥평현(興平縣)의 현령인 주운(朱雲)이 행한 충언이다. 용봉은 하(夏)의 폭군인 걸왕(桀王)에게, 비간은 은(殷)의 폭군인 주왕(紂王)에게 직언을 하다가 살해된 충신들이다. 단종의 복위 운동에 가담했던 성삼문은 국청 현장에서 세조의 왕권 찬탈이 부정행위였음 힐난하고 혹독한 형벌을 받아 사사된 조선 왕조의 충신이었다. 주운이나 성삼문에서 당시 유가(儒家)의 정의에 관한 진수를 볼 수 있다.

근대에 접어들면서 정의의 개념에 변화가 일어났다. 중세에 일어났던 전쟁, 특히 십자군전쟁이 ‘정의로운 전쟁’이란 개념을 추방하려는 움직임이 근대의 유럽 정치사상가 사이에서 논의되었다. 어떤 형태의 전쟁도 정의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존 로크, 토머스 홉스만큼 정의론을 주장한 인물도 드물 것이다.

원자력은 평화적 이용만이 정의의 개념에 부합

대부분의 일반 대중이 ‘원자력’이란 용어를 처음 듣게 된 것은 1945년 원폭이 일본에 투하된 이후였다. 원폭의 위력에 놀란 세계인들은 원폭이 투하되지 않았다면 일본 본토 상륙전에서 보다 많은 미·일 양국의 군인과 양민의 희생이 불가피했다면서 원폭 투하의 당위성을 설명한 미국의 논리가 정의롭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오늘날 이를 수궁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듯하다. 정의는 현대적 전쟁 개념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원자력은 평화적 이용만이 정의의 개념에 부합된다. 암을 포함한 각종 질병의 조기 진단과 치료, 농작물의 품종 개량과 식품의 장기 저장, 각종 해충의 박멸과 개량 비료 생산, 비파괴 검사와 지하수 개발, C-14 연대 측정과 각종 정밀 기계 제작 등 원자력은 광범위에 걸쳐 이용되고 있다.

무엇보다 에너지 개발에 원자력의 이용이 크게 기대되고 있다. 화석 연료의 가격 급등과 지구 온난화로 향후 원자력의 비중은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Atom for Peace)’은 정의로운 인류 문명의 선도자이다. 